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을 비롯한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이 5·18민주광장에서 함께 한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지원 퍼포먼스(왼쪽)와 목송그룹 여자조정팀 창단 기념 사진.



〈광주시체육회 제공〉

양궁·당구 메가스�포츠 성공 개최...국제스포츠도시 우뚝

2025 광주시체육회 결산

광주시체육회는 올 한해 '내일이 빛나는 광주체육'을 슬로건으로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광주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등 국제대회 성공 개최, 2028 전국체육대회 유치, 시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체육기반 시설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잇따라 거두며 광주체육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스포츠도시로 우뚝 선 2025년, 굵직한 성과를 10개로 간추려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2028년 제109회 전국체전 유치

광주가 오는 2028년 제109회 전국체전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7월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44회 월요대회,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광주체육인과의 대화'를 통해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광주체육인들과 함께 체전 유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에 유치신청 TF팀을 구성해 유치신청서 제출을 완료했고, 10월 최종 대한체육회로부터 유치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광주는 20

07년 제88회 전국체전 이후 21년 만에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부산 전국체전 종합 11위 달성

지난 10월 부산시 일원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광주선수단은 163개의 메달과 3만2천626점을 획득해 종합 11위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18년 만에 최다 금메달을 획득했고 5년 연속 3만1천점대 이상을 기록했다. 농구 수퍼아이가 29년 만에 우승을, 불링 남자일반부 OB팀이 전국의 실업팀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잇단 국제대회 성공 개최, 세계가 주목

지난 9월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74개국 94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5·18민주광장에서의 결승전은 민주와 성지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스포츠가 지닌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또 11월에는 2025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이 최초로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시체육회는 체육시설 지원, 임직원 대회 붐 조성 등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했다. 광주는 이번을 통해 '2015하게 유니버시아드'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양궁과 당구 대회까지 성공 개최하며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활발한 스포츠교류...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광주시민체육대회, 5개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체육활동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광주시체육회는 내년도 시민 건강증진을 우선 가치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각종 공모 성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광주시체육회는 국비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총 27억6천만 원을 확보해 지원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6개 단체 18개팀에 5억4천만 원을,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 및 특화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3억4천만 원을 받았다. 또 온가족 사계절스포츠교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에도 8억8천만 원을 지원받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였다.

팀 창단 활기...연계 육성 강화

어려운 광주체육의 미래를 이어가기 위해 호남대에서 태권도 품새팀을 창단했다. 송원대에서도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지역선수 연계육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목송그룹에서는 여자조정실업팀을 창단해 졸업한 선수들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목송그룹에서는 여자조정실업팀을 창단해 졸업한 선수들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년체전 예선 광주시체육회 주관 개최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해 열렸던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가 올해 제54회 소년체전부터 광주시체육회에서 주관으로 개최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전문기관으로서 검토 등 21개 종목 예선을 차질없이 실시해 대표선수를 선별했다. 그 결과 5월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54회 소년체전에서 7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지난해 대비 경기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포츠과학 선도...‘건강 지킴이’ 수행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은 2015년부터 광주스포츠과학센터와 2020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컨디셔닝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엘리트 선수들의 기초 및 전문체력 측정, 운동처방 및 재활지원은 물론 부상예방 훈련, 회복 훈련 등 스포츠과학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전국(소년)체전, 광주세계양궁대회 등 각종 대회에 전문연구원을 파견해 현장 지원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돕는 닥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종목단체 회장선거

광주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회장선거가 지난 4월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로 새로 취임한 회장은 총 40명으로, 4년간 각 종목을 이끌며 시민과 선수를 위해 봉사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선거 실시 4개월 전부터 종목단체 회장선거TF팀을 구성해 각종 규정과 선거 절차 등에 대해 지원하며 선거를 원만하게 마무리해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왔다.

체육시설 안전 관리, 시민 편의 도모

광주시체육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의 개방 확대 및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과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 체육시설 우수관리로 월드컵경기장 그린스타디움상과 무등야구장 감사패를 수상했고 염주승마장은 그린승마존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대상파크골프장 확장, 무등야구장 펜스 및 그물망 추가설치 등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올 한해 광주체육이 굵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광주체육인들이 땀 흘린 결과”라며 “올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욱 빛나는 광주체육, 특히 제주 전국체전에서는 10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검증된 신뢰...‘마운드 리스크’ 최소화

KIA, ‘스토브리그 마운드 해법’...외국인 ‘원투 펀치’ 성과보다 예측 가능성 최우선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6시즌 외국인 투수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내린 결정은 ‘변화’가 아니라 ‘유지’였다. 선발진 ‘원투펀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네일과 올라 체제로 간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모색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조합을 그대로 가져가는 선택이다. 이는 단순한 결정이라기보다, 마운드 운용 전반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외국인 선발 두 자리는 시즌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새로운 투수 영입은 기대만큼이나 확인해야 할 요소가 많다. 구위 적응부터 리그 환경, 이닝 소와 여부까지 다시 검증해야 한다. 이번 겨울 KIA는 이 과정을 반복하기보다, 이미 확인된 선택지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네일과 올라는 이미 KBO리그에서 각기 다른 경험치를 쌓으며 각자의 역할 범위를 증명해 왔다. 지난해 우승의 주역인 네일은 올 시즌에도 에이스급 기량을 과시하며, 팀 마운드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첫 시즌을 치른 올라 역시 팀 내 최다승과 유일한 두 자리 수를 챙기며,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맡았다. 압도적인 활약을 기대하기보다 계획 가능한 선발 카드라는 점이 이번 유지 결정의 핵심이다. 경기 운영 패턴과 이닝 관리가 어느 정도 계



KIA 선발진 원투펀치 네일과 올라 (KIA 타이거즈 제공)

산된다는 점에서, 코칭스태프 입장에서는 시즌 운용의 기준점을 잡기 수월하다. 이 선택은 마운드 전체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선발이 불안정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내 자원과 불펜으로 전가된다. KIA가 네일·올라 체제를 유지한 것은, 선발진 하위

로테이션과 불펜 소모를 함께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마운드 전반의 균형을 먼저 잡으려는 판단이다. 올 시즌 국내 선발진과 불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자원만큼은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이 일한다. 결국 KIA의 외국인 투수 선택은 ‘업그레이드’보다는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즉, 외국인 구성의 출발점에서 구단이 가장 먼저 놓아놓은 것은 마운드의 불확실성이었다. 이를 통해 선발 로테이션과 불펜 운용의 안정을 함께 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올 스토브리그 전반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KIA는 이번 오프시즌에서 야수 쪽 전력 유출이 두드러졌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와 타선의 중심 최형우, 백업 포수 한승택이 FA 시장에서 한꺼번에 이탈했다. 반면 마운드는 ‘유지’와 ‘보강’의 방향을 동시에 택했다. 2차 드래프트와 보강선수로 불펜 자원을 보강했고, 내부 FA 협상에서도 양현종과 이준영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아직 조상우와의 협상이 남아 있지만, 구단이 먼저 지키려 한 우선순위는 분명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수 구성 역시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 내년 시즌 전력 설계의 출발점은 마운드 안정이었다. 이제 관건은 그 완성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다. /주홍철 기자



29일 열린 전남도체육회 제60차 이사회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각종위원회 위원들이 2026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되돌아 본 80년, 도약하는 100년’

전남도체육회 이사회, 내년 ‘창립 80주년’ 중장기 비전 선포

전남도체육회가 2026년 전남 체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6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체육회는 29일 오후 3시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전남도체육회 제60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2026년 전남 체육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내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전남도체육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전남체육 80년, 도약하는 100년’을 제시하며, 전남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중장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남도체육회 임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는 20

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체육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을 대비한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도체육회는 2026년 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6억7천만 원 증액에 총 11.7% 증가함에 따라, 전남 체육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선수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 이 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체육이 걸어온 80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돼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전남 체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